

사랑터

제1702호

연중 제23주일

2020년 9월 6일

주 소: 김해시 진영읍 진영산복로110 / 홈페이지: <http://jy.cathms.kr/>

전 화: 345-7086(사제관)/ 343-2446(수녀원)/ 343-2018(사무실)/ 345-2357(Fax)

미사안내: (월) 6:30, (화,목) 19:30, (수,금) 10:00, (토) 18:30특전 (주일) 6:30, 10:30

주일 전례 봉사자						
구 분	9월 6일(연중 제23주일)			9월13일(연중 제24주일)		
새벽 미사	해 설	황복자 마리아			차화선 스텔라	
	1독서	김승원 마오로			김판곤 오네시모	
	2독서	황숙자 베로니카			박동주 F.로마나	
교중 미사	해 설	정미화 M.막달레나			김재실 에바리스또	
	1독서	안정준 바오로			최해정 세실리아	
	2독서	김인숙 세실리아			조점연 로사	
평일 전례 봉사자						
날짜	9월 7일(월)	9월 8일(화)	9월 9일(수)	9월10일(목)	9월11일(금)	
해설	도정숙 메히틸다	이가희 소피아	이상희 로사	차화선 스텔라	황숙자 베로니카	
독서	서희원 마리아나	사도들의 모후	사랑하올 어머니	순교자의 모후	순결하신 모후	

9월 6일 (연중 제23주일)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성가정회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선교분과
	미사안내	홍보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성실하신 모후 Pr.
	성전청소담당 8/31(월)-9/ 6(일)	6)센텀큐브,휴먼빌,휴먼시아6단지
	차량봉사(좌곤리)	박종탁(알폰소)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 주양원(요셉) 후 : 박계현(프란치스코)
	차량봉사(유등)	장도영(마태오)
9월13일 (연중 제24주일)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성가정회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구역분과
	미사안내	전례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성실하신 모후 Pr.
	성전청소담당 9/ 7(월)-9/13(일)	1구역 하계반
	차량봉사(좌곤리)	최효찬(프란치스코)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 박안홍(시몬) 후 : 신강순(도미니코)
	차량봉사(유등)	최영주(안젤로)

■ 사목협의회 이번 주 교중미사 후

■ 건진성사

-일시: 9/9(수) 19:30분(오전미사 없음)

-참석대상: 건진자와 대부모

-사진대 및 꽃대: 10,000원

-발열체크 봉사(18:30분부터): 사목회장단

■ 9/11(금) 병자성사 있습니다.(미사 후 성당)

■ 대산공소 미사 다음 주 14시

-동행: 인자하신 동정녀 Pr.

겸손하신 모후 Pr.(성당13:30분 출발)

■ 전입을 환영합니다.

-정영권 미카엘(1구역 이진캐스빌)

-정이숙 모니카(6구역 휴먼시아6)

■ 교구 성경부 하반기 [비대면] 성경공부 안내

-개강일: 9/21(월)~25(금)

-회비: 2만원(교재비 포함)

-신청: 9/11(금)까지, 사목국 성경부

-문의: 사목국 성경부 249-7025~6

■ 추석 합동 위령미사 신청(사무실)

■ [비대면] 제9회 교구 성경 잔치 안내

-[코로나19시대 나의 말씀 체험 이야기]

공모전

-일시: 10월11일까지 사무실

-작품종류: 그림, 글(시, 체험수기 등), 동영상

■ 은총성경쓰기(역사서2) 완필자 주교님

완필증 신청(10/11일까지 사무실)

■ 구.신약 성경 완필 축복장 수여

-신청: 10/11일까지 사무실

-대상: 2019년 8월 1일 ~ 2020년 8월31일,

기간 중에 필사증 발급받은 분

-11/22일(성서주간) 본당에서 시상

■ 미사 참석 시 유의사항

-타 지역에 다녀오거나, 타 지역 사람을 만나

고 오신 교우님은 미사참석 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교육관 미사참석)

- 화 답 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 라

교무금 : 8월29일(토) - 9월 4일(금)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김수천(스테파노)	8	이삼순(올리아)	8	차일순(마리아)	8
신강순(도미니코)	9	임용선(베드루닐라)	8	김정수(마리아)	9
허정순(마르타)	8	문상순(모세)	8	김양금(헬레나)	11-12
오종두(베드로)	8-9	이정진(로즈마리)	10-12	양재연(젬마)	8
강동립(안셀모)	3-7	강연옥(헬레나)	6-8	지영갑(안드레아)	9
지윤자(마틸다)	9	백현국(사도요한)	8	김순교(글라라)	9
김수자(노엘라)	9-10	최호연(도마)	9	이상현(T.아퀴나스)	9
강미숙(소화테레사)	5-9	최효찬(프란치스코)	8	조순순(안나)	9-10
서정아(프란치스카)	9	정재복(아벤티노)	9	김춘자(요안나)	8
김창갑(프란치스코)	8	김민희(요안나 F.)	9	신지연(마리스텔라)	9
전정부(아우구스티노)	9	조양규(미카엘)	9	손미정(수산나)	9
박승규(엘리시오)	1-8	강옥경(아셀라)	9	노영곤(도미니코)	8
서성혜(발렌티나)	8	정병희(레오나르도)	9	김준상(안토니오)	8-9
원영만(가브리엘)	7-12	차화선(스텔라)	7-8	김서미(세실리아)	9
송아정(가브리엘라)	7	김선아(베로니카)	9-10		
교구사업모금(2020년 배정액2,811만원중 922만원 봉헌) : 8월29일(토) - 9월 4일(금)					
이삼순(올리아)	8	신강순(도미니코)	9	이정진(로즈마리)	1
양재연(젬마)	8	지영갑(안드레아)	9	서정아(프란치스카)	9
■ 용원성당 성전건립 기금 -기간: ~ 2020년 4월 30일 -분담금 57,700,000원(교무금 4개월분 납부) -봉헌 누계: 48,618,000원(206세대 납부완료) -모든 세대 납부 부탁드립니다.		주일 미사 참례자수 : 233 명			
		교무금		4,908,000원	
		주일 헌금		1,368,000원	
		교구사업모금		175,000원	
		성소후원금		126,000원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농협 843-01-076467 / 예금주 : 진영성당 (교무금 책정자 성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몬시뇰(Monsignore)

몬시뇰이란 주교와 신부 사이에 있는 고등 성직자를 말한다. 몬시뇰의 기원은 1308년에서 1378년 사이에 프랑스 ‘아비뇽’을 임시교회 수도로 정하여 교황이 있었을 때 교황 보좌관 및 교황 시종들을 프랑스 사람들이 몬시뇰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서 시작된 몬시뇰은 그 후 교황청 고급 관리로서 추기경이나 주교가 아닌 일반 신부들에게 적용되는 칭호가 되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몬시뇰의 칭호는 일반 교구의 부주교급이 갖는 칭호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교황청 대법원 고급 관리들에게 주어지는 칭호도 되었었다. 오늘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교구의 부주교 또는 전통이 있는 큰 본당의 주임 신부 또는 오랜 동안의 성직 생활로 교회에 공적이 큰 원로 성직자들에게 교황청에서 주는 명예 칭호가 되었다. 이들에게는 교법상의 특권은 없으며 교회 의식 때 수단 위에 빨간 띠를 두를 수 있고 빨간 단추가 붙은 수단을 착용하여 몬시뇰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이란

여기 호주머니가 비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정이 딱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의 비어 있는 호주머니를 가득 채워주었다면 아마 그는 동정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베푼 사람은 사랑이었는데, 받은 사람은 동정이라고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일도 겪게 되지요. 주고 싶어 했던 사람도, 받고 싶어 했던 사람도 모두 마음이 상해버리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곧바로 서로 후회를 하지요. 받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만 더 헤아렸으면 좋았을 것을. 주는 사람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텐데, 하면서 돌아서고 나서야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이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이란 그래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그래서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소리 없이 그 아픔을 감싸준다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무릎 아래가 없는 아이를 보고 재수 없다고 그 아이를 식당 밖으로 쫓아내자 그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와 똑같이 무릎걸음으로 그곳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분명히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소리 없이 그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딱 그녀만큼만 알고 살았으면....